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  
문화사랑



우리 곁에는 나로 인해 주위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행복의 주인이죠.  
문화사랑으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어렵지도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문화사랑 티 국립극장문화포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유근종 국립극장문화포럼 하늬희원 (주)한티 (주)한울 건축설계관리 대표이사 회장 수원화성문화재 初代正殿大守



커버스토리 | 국립극단 세계명작무대 <귀족놀이>  
특집 | 2004 국립극장 창작공모  
세상 밖으로 | 국가 지원 축소로 어려운 독일의 극장가

www.ntok.go.kr  
2004

.09



# 프랑스에도 '양반전' 이 있었다?

이 가을에 만나는 프랑스風 퓨전 코미디 <귀족놀이>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운택)의 간판 기획공연 시리즈인 '세계명작무대'의 2004 가을판 프랑스 풍자희곡의 대가이자 배우 겸 연출가인 몰리에르 원작의 <귀족놀이>(번역 및 드라마트루그 최준호)가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의 연출로 9월 11일(토)부터 24일(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다.

연출을 맡은 에릭 비니에(Eric Vigner·44) 씨는 현재 프랑스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 겸 로리앙 극장 예술 감독으로, 최연소로(35세) 프랑스 국립연극센터 소장에 임명될 만큼 실험성과 연극성을 고루 갖춘 연출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프랑스의 국립극장인 '코메디 프랑세즈'에 <사바나 만(灣)>을 고정 레퍼토리로 올린 인물로도 유명하다. 국립극단은 '세계명작무대'를 준비하면서 프랑스 외무부 예술진흥협회(APFA)의 추천으로 연출가 에릭 비니에 씨를 초빙하였으며, 2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기획·준비해 이번에 <귀족놀이>를 올리게 되었다.

국립극단의 '세계명작무대'는 지난 1986년에 시작,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국립극단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으로, 민간 극단에서 쉽게 올릴 수 없는 대작 위주의 세계 명작을 수준 높은 공연으로 꾸준히 소개, 공연 애호가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 특히 현지 연출가를 통해 본고장 연출의 맛을 살린 작업도 계속해 왔는데, <파우스트>(피테작·기정 연출), <간계와 사랑>(실러작·이놀드 연출), <노부인의 방문>(뒤렌마트 작·메즈거 연출), <흔수 없는 여자>(오스트로프스키 작·보리스 마조로프 연출), <브리타니쿠스>(라신느 작·다니엘 메스기쉬 연출) 등이 대표적이다.

돈 많은 평민이 후작부인을 사모했을 때  
2004년 국립극단이 만드는 <귀족놀이>는 우리나라에는 <귀족수업>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몰리에르(1622~1673)의 희곡 「Le Bourgeois Gentilhomme 평민 귀족」을 원작

으로, 여기에 한바탕 '놀이'로서의 유희성을 강조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 현대적인 감각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프랑스 판 '양반전'이라 해도 무방할 작품이 <귀족놀이>이다. 기존의 작품이 평민 '주르맹'이 귀족계급에 끼어들려고 소동을 벌이지만 결국 웃음거리로 전락한다는 단순한 코미디로 알려져 있다면, <귀족놀이>는 돈 많은 평민 주르맹이 후작부인을 사모하면서 문화와 예술로써 그녀의 세계에 한걸음 한걸음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한 남자의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Le Bourgeois Gentilhomme 평민 귀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프랑스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귀족놀이>는 21세기 한국은 물론이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통하는 보편적인 언어로, 자유롭고 열린 연극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지향한다.

**프랑스 최고의 스타트와 한국적 감각의 랑데부**  
새로운 <귀족놀이>의 탄생을 위해 에릭 비니에 씨가 직접 연출과 무대 및 의상디자인을 맡았고, 프레데릭 롱바르(안무 겸 조연출), 조엘 우르베이(조명) 등 연극, 오페라, 무용 등으로 프랑스 주요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고 실험적인 스타트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디자인된 무대와 의상은 윤시중(무대디자인), 송은주(의상디자인)와 같은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다시 한 번 한국의 선과 질감이 물씬 나는 '한국 색깔'로 변모시켰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바로크음악은 박윤희, 조원행의 편곡으로 한국정서의 음악으로 재탄생, 국립극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실연된다. 또한 국립무용단 단원들이 프레데릭 롱바르의 안무로 새로운 한국춤을 선보이고, 국립오페라단 단원 3명도 여기에 가세해 국악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새로운 성악을 시도한다.

여기에 국립극단의 유망주인 인정받고 있는 이상직(주르맹 역), 광명화(후작부인 역)를 비롯한 젊은 배우 11명이

# Le Bourgeois Gentilhomme



총출연하여 좀처럼 보기 힘든 한판 축제를 벌인다.

10월엔 프랑스 로리앙 극장에서

이번 <귀족놀이> 공연은 한국 공연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프랑스 브르타뉴의 '로리앙(Lorient) 극장' 무대에 다시 올려져 프랑스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로리앙 극장은 에릭 비니에 씨가 소장으로 있는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가 운영하는 브르타뉴 지역의 국립 극장. 지난해 개관한 1,100석의 이 대극장 무대에 한국 국립극단의 <귀족놀이>가 그대로 오른다.

특히 '로리앙(Lorient)'이라는 지명은 태양왕으로 만들어지던 루이 14세가 직접 지은 '오리엔트(동양)'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미래에 오리엔트 문화의 교류 거점이 되라는 뜻으로 명명되었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그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가 2004년 국립극단의 <귀족놀이>로 비로소 시작되는데, 로리앙 극장은 국립극단의 공연과 때를 맞춰 6일 동안 다양한 한국문화(한국 음악, 춤, 문학, 요리, 한국인 화가의 그림전 등)를 소개하는 행사도 함께 열어 프랑스 관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이 한국의 젊은 배우들과 만나면서 한국과 프랑스, 고전과 젊은 해석 간의 신선한 상상력을 기대하게 하는 이번 시도는 한국-프랑스 간 새로운 문화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며, 한국에는 프랑스를, 프랑스에는 한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04년 가을 연극 무대 - 탄탄한 구성의 명작 무대에 새로운 해석의 연출, 젊은 열정의 배우들, 한국춤과 오페라, 한국악기와 연주가 어우러지는 한바탕 신선하고 유쾌한 '축제 로 <귀족놀이>'가 그 시작을 열 것이다.

9. 11(토)~24(금) 달오름극장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 7시 30분/ 일 오후 4시 (13일 공연없음)  
 관람료 : 3만원, 2만원, 1만 5천원 (사랑티켓 참가자)  
 \*장애인석 5천원 (공연 당일 2시부터 선착순 20명, 프로그램 포함, 1인 2매 구입가능)  
 예매 및 문의 : 1588-7890 www.ticketlink.co.kr (티켓링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티켓파크)  
 02-2260-4114~6 www.ntok.go.kr (국립극장)

'타자(他者)'와 '미래'를 향한 눈  
 프랑스 연극계의 스타일리스트, 에릭 비니에

"이것은 놀이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지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금, 현재의 느낌을 받아들이세요."

<귀족놀이>를 연습하는 내내 배우들에게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을 거듭하는 연출가 에릭 비니에 씨(Eric Vigner · 44 ·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 지난 300여 년 동안 '프랑스 풍자 희곡'의 대표작으로 군림해 온 몰리에르의 「평민귀족」(Le Bourgeois Gentilhomme 르 브루주아 정미움므)을 국립극단과 함께 <귀족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는 그이기에, 기존 작품에 대한 편견만큼 불필요한 것은 없다. 이번 작업은 몰리에르에서 시작되지만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창조해 내, 고전이 아닌 2004년의 작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리에게 '귀족수업'으로 더 잘 알려진 몰리에르의 이 작품은, 돈만 많은 평민 주르맹이 귀족 흉내 내느라 온갖 허세를 부리지만 결국 웃음거리로 농락당한다는, 혹은 부르주아와 귀족 둘 다 비판하는 양자풍자극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니에 씨는 관습화된 이 작품의 주제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읽어 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꿈과 환상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후작부인을 사랑함으로써 그녀에게 더욱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도중 남자(주르맹)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세계(시, 음악, 춤, 검술, 철학, 언어...)를 알게 되고, '연희(演戲)'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결국 사람의 꿈과 환상의 힘, 죽어 버릴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의 창조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말해 보고자 한다고.

비니에 씨의 해석이 이러하듯 작품을 담는 그릇도 독특하다. 나이 든 배우 대신 젊은 배우들로, 쾰리의 바로크 음악은 국악관현악으로 편곡·연주되고, 발레는 한국춤으

로, 바로크 의상은 한국 천의 질감과 색깔로 변신, 동서양과 신구의 만남(충돌, 교환, 스며들)을 시도한다.

비니에 씨는 이미 프랑스 연극계에서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은 젊고 실험적인 연출가이자 '최연소 국립연극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연극 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개성적인 스타일리스트로 주목받는 인물. 2000년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사바나 만(灘)>을 코메디 프랑세즈에 올림으로써 '텍스트를 몸으로 표현하는 연출가'라는 찬사를 받았는데, 이 작품은 그로 인해 코메디 프랑세즈의 레퍼토리로 등록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지난 2002년 국립극단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4번에 걸친 방문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 학습하듯이 체험해 온 비니에 씨는 '변화무쌍하면서도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진 나라'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귀족놀이>는 9월 한국 공연이 끝난 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비니에 씨가 소장으로 있는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의 로리앙 극장 무대에도 오른다. 그가 직접 캐스팅, 애정으로 만나고 있는 국립극단 배우들과 한국 색깔이 살아 있는 <귀족놀이>로 프랑스 관객들에게 새로운 느낌, 새로운 충격을 주고 싶다고.

"몰리에르는 완벽한 작가이자, 한없이 열린 작가입니다."

'코미디'의 형태를 취했지만, 이 안에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중산계층에 대한 선견지명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가능한 열린 연극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비니에 씨는 몰리에르에게서 발견한 타자와 미래를 향한 시선이, 자신을 아시아의 한국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 재발견되는 몰리에

르, 그 새로움에 흠뻑 빠져보는 가을 무대를 기대해 본다.

1960년 프랑스 브르타뉴 렌느 생 리옹 국립연극예술·기술학교(ENSATT), 렌느 콩세르바투아르, 파리 국립연극학교(콩세르바투아르, CNSAD) 졸업. 1996년 로리앙 소재 '브르타뉴 연극센터' 소장에 35세 나이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임 중이고, 로리앙 극장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다.

글 | 한정희 (국립극장 대외협력팀)  
 사진 | Othello Vilgard

